

「생명과 말씀」 제8권(2013):13-33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설교학적 힘
- 조지 휘필드(George Whitefield)의 새 생명 설교와
그 설교학적 임팩에 관한 연구 -

The Impact of the Reformed Life Theology

- A Case Study-the Sermon on the New Birth of George Whitefield -

권호(Ho Kwon)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설교학

I. 들어가는 말

설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설교는 언 어유희요 헛된 사상에 불과하다. 신약성경에서 설교와 관련된 헬라이어 단어가 16개 이상 나타난다.¹⁾ 그 중 설교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두 단어가 ‘케루쏘’(khrus,ssw)와 ‘유앙겔리조’(euvaggeli,zw)다. 케루쏘는 왕되신 하나님께 ‘보냄 받은 설교자’의 이미지를 강조한다.²⁾ 한편 유

1) 신약성경에 나타난 설교와 관련된 간략하면서도 효과적인 단어연구를 위해 다음 책에 실린 메이휴(Richard L. Mayhue)의 글을 참고하라. John MacArthur, 「설교론: 어떻게 성경적으로 설교할 것인가?」, 박성창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35-37.

2) Gerhard Friedrich, “khrus,ssw” in *The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s., ed. Gerhard Kittel, trans. Geoffrey W. Bromiley (Grand Rapids: Eerdmans, 2006), 3:697. 신약성경에서 케루쏘는 왕 혹은 다스리는 자 (ruler)의 메시지를 전령이 선포하는 것을 뜻한다. 케루쏘는 한국성경에서 주로 ‘전하다 혹은 전파하다’로 번역되고, 대부분의 영어

양겔리조는 '생명을 살리는 설교자'를 강조하는데 그것의 어원이 기쁜 소식, 즉 죽어가는 영혼에게 구원을 베풀어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행위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³⁾ 신약성경에서 설교와 관련된 대표적 두 단어를 통해 그 의미를 정리해볼 때 설교라는 것은 결국 왕 되신 하나님께 보냄 받은 설교자가 생명을 살리는 기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교회 강단에서 주로 전해지고 있는 것들은 진리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설교라기보다는 다분히 개인적 평안과 축복에 관한 메시지들이다.⁴⁾ 이러한 한국교회의 설교학적 경향은 현 한국교회의 신학이 기도와 말씀이 바탕 된 영성을 무시하고, 교회현장과 분리된 상태로 지나친 사변화의 과정으로 흘러가

성경에서 '설교하다'(to preach)로 번역된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와 세례에 대해 설교할 때(막 1:4), 예수님께서 회개와 천국에 대해 설교하실 때(마 4:17), 사도바울이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고전 1:23) 모두 이 동사가 쓰였다. 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딤후 4:2)고 명령했을 때도 동일한 단어가 쓰였는데 대부분의 영어성경은 이 구절을 '설교하라'로 번역하고 있다(preach the word).

- 3) 신약성경에서 유양겔리조는 케루쏘와 더불어 설교하는 행위,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다'(to preach the Gospel)는 의미로 쓰인다.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설교하신다. 이 때 예수님 설교의 주된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는데, 듣는 자에게 기쁜 소식(good news)으로 전파되었다. 사도행전 8장 4절은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한다. 헬라이어 본문에는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때 유양겔리조가 쓰였다. 그래서 한국 성경은 말씀을 전하되,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 설교자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로 번역했다. 한편 영어성경은 유양겔리조와 케루쏘를 같은 의미로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설교했다'(preach the word)로 번역했다. 핍박 받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전해지는 설교는 기쁜 소식이다. 묘한 대조가 보인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케루쏘와 유양겔리조 둘 다 설교의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인데, 후자의 것이 그 내용의 구체성, 즉 설교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 4) 정찬균, "한국교회와 설교: 한국교회 설교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 『한국복음주의신학회』 61 (2013): 46-47. 신성욱, "번영신학과 설교학적 대안," 『설교한국』 (2012): 59-76.

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⁵⁾ 진정한 신학은 진리를 목숨처럼 지키되 “지성과 의지의 교만”은 철저히 부정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뜨거운 영성이 살아있는 “가슴신학”과 “무릎신학”이 되어야 한다.⁶⁾ 이런 신학이 바탕이 될 때 생명을 살리는 설교자를 배출할 수 있고, 그들을 통해 한국교회 강단이 올바른 모습으로 회복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설교가 신학적 사변을 버리고 올바른 개혁신주의생명신학에 바탕이 되었을 때 어떤 말씀의 충격과 설교학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역사적 사례를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성주의의 절정이었던 18세기에 생명신학이 담긴 설교로 영국교회와 미국 대부흥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조지 휘필드(George Whitefield)를 살핀다. 휘필드는 옥스퍼드에서의 개인적 회심을 “새 생명”(new birth)으로 표현했고, 그가 설교자가 되었을 초기부터 영국교회를 향해 종교적 행위와 지적 사변을 버리고, 진정한 새 생명의 경험으로 나올 것을 지속적으로 외쳤다. 그의 새 생명의 메시지는 영국교회의 각성과 전도운동에 기폭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18세기 미국 1차 대부흥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휘필드의 새 생명 중심의 설교적 임팩과 그를 통한 영, 미교회의 영적 각성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변적 지성을 넘어 생명의 힘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참조점을 제시해 준다. 본 글은 휘필드의 새 생명 설교와 그 설교학적 임팩을 연구하기 위해 예비단계로 그의 새 생명 메시지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옥스퍼드에서의 개인적 회심을 살펴볼 것이다. 그 후 그의 새 생명 메시지가 왜 영, 미교회에 중대한 설교학적 임팩을 남겼는지에 관해 분석하고 그 결과들을 정리해

5) 장중현, 「개혁신주의생명신학 선언문 해설」(서울: 백석정신아카데미, 2011), 17-21.

6) 다음의 책에서 장중현의 “개혁신주의생명신학”을 참고하라. 개혁신주의생명신학회 「개혁신주의생명신학」, 5.

볼 것이다.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휘필드의 새 생명 설교로부터 우리 현대 신학자와 설교자들이 배워야 할 적용점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휘필드에 관한 서적들이 국내에 번역된 것이 거의 없으므로 논문자료로 영, 미출판사에서 발행된 책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

II. 휘필드의 생애와 설교학적 공헌

휘필드는 18세기 영, 미 영적각성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설교자로 평가되고 있다. 곧 살펴보겠지만 그의 설교는 당시 영국 국교회(Anglican Church)에 만연된 종교적 형식주의를 넘는 본격적 대규모 전도운동의 길을 열어주었다. 특별히 미식민지 시대(Colonial America)의 초기 영적각성 운동이 지역적 양상(local revival movements)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⁷⁾ 휘필드의 순회설교사역(itinerant preaching ministry)을 통해 전 지역이

7) 18세기 초기 미국 부흥운동의 발흥과 그 발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책들을 참고하라. Thomas S. Kidd, *The Great Awakening: The Roots of Evangelical Christianity in Colonial Americ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7), 83-94. Kidd presents the background of the Great Awakening and recent discussion related to it. For more studies, see Darrett B. Rutman, *The Great Awakening: Event and Exegesis* (New York: Wiley, 1970); J. M. Bumstead, *The Great Awakening: The Beginnings of Pietism in America* (London: Blaisdell Publishing Company, 1970); Cedric B. Cowling, *The Great Awakening and the American Revolution: Colonial Thought in the 18th Century* (Chicago: Rand McNally, 1971); Michael J. Crawford, *Seasons of Grace: Colonial New England's Revival Tradition in Its British Contex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Keith Hardman, *Seasons of Refreshing: Evangelism and Revival in America* (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and G. McLoughlin, *Revivals, Awakenings, and Reform: An Essay on Religious and Social Change in America, 1607-1977*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통합되는 부흥운동(intercolonial awakening)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1차 대 각성운동(First Great Awakening)이 본격화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영국의 전도운동과 미국 대각성운동이 모두 휘필드의 새 생명에 관한 설교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본 섹션에서는 먼저 휘필드의 옥스퍼드에서의 회심사건을 잠시 살펴본 후 그의 새 생명 메시지가 영국과 미국에서 남긴 설교학적 임팩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옥스퍼드에서의 극적 회심

휘필드는 1714년 12월 16일 영국의 글로스터(Gloucester)에서 태어났다. 휘필드가 두 살 때 그의 아버지는 죽었고, 어머니 엘리자베스(Elizabeth)는 재혼을 했지만 다시 파경을 경험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홀로 꾸려나가는 어려운 삶을 살았다.⁸⁾ 휘필드는 옥스퍼드에 입학하기 전까지 어머니가 운영하는 벨 여관(Bell Inn)에서 그녀를 도우며 지냈다. 열두 살 때 그는 성 마리아 문법학교(St. Mary de Crypt Grammar)에 입학해서 정식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에 공부를 중단하고 어머니를 도와 여관 일을 하는 동안 휘필드는 대학생들을 보며 자신도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옥스퍼드에서 근로 장학생(servitor)으로 일하면 학비를 지원받고 공부할 수 있다는 정보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⁹⁾ 그는 대학입학을 위해 문법학교로 다시 돌아와 학업에 전념했고

8) Edwin N. Hardy, *George Whitefield: The Matchless Soul Winner* (New York: American Tract Society, 1938), 19-20.

9) George Whitefield, *George Whitefield's Journals*, ed. John Gillies (Carlisle, PA: The Banner of Truth Trust, 2001), 42. Douglas Maclean, *A History of Pembroke College Oxford: Anciently Broadgates Hall, In Which Are Incorporated Short Historical Notices of the More Eminent Members of This House (1897)* (Whitefish, MT: Kessinger Publishing,

결국 18세 되던 1732년에 옥스퍼드 펨브로크 칼리지(Pembrok College, Oxford)에 입학하였다. 휘필드는 옥스퍼드에서 존 웨슬리(John Wesley)와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가 이끄는 홀리클럽(Holy Club)에 가입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¹⁰⁾ 웨슬리 형제의 지도하에 엄격한 규율을 통해 경건한 삶을 추구하던 중 휘필드는 깊은 영적고뇌를 품는 시기를 맞이한다. 그는 찰스웨슬리가 빌려준 헨리 스코걸(Henry Scougal)의 책 “인간 영혼 속에 깃든 하나님의 생명”(The Life of God in the Soul of Man)을 읽으면서 과연 종교적 행위가 구원의 확증이 될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이 구원받은 존재인가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¹¹⁾

그렇다면 휘필드는 왜 자신의 구원에 대해 그토록 고민하게 된 것인가. 그는 웨슬리 형제가 제시하는 훈련에 따라 철저히 “규율을 지키는 삶”을 살았지만 결코 “영혼의 안식이 없었다”고 그의 저널에 기록했다.¹²⁾ 홀리클럽에서 제시하는 규율을 통한 종교적 형식에서 안식을 찾을 수 없던 휘필드는 스코걸의 책을 통해 구원은 종교적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연합(the union of his soul with God)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한 설교를 통해 당시 구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이 영벌에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자신의 마음에 있었다고 고백했다.¹³⁾ 믿음을 통한 구원에 대한 확신

2007), 360-61.

10) Anthony Beaurepaire, *George Whitefield and the Great Evangelical Awakening* (London: Protestant True Society, 1987), 12.

11) Albert D. Belden, *George Whitefield: The Awakener* (Nashville: Cokesbury Press, 1930), 19. Hardy, *George Whitefield*, 41.

12) Whitefield, *Journals*, 47.

13) George Whitefield, “All Men’s Place,” in *Sermons on Important Subjects*, ed. Joseph

을 찾기 위해 휘필드는 홀리클럽을 떠나 혼자 정적주의(Quietism)와 고행주의(asceticism)적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숲에서 홀로 기도하며, 종종 겨울에 얼은 땅위에서 밤새 누워있기도 했고, 남루한 옷을 입고 최소의 음식과 물로 생활하며 자신의 구원에 대해 철저히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다.¹⁴⁾ 1735년 이런 영적고투 속에 휘필드는 6주 동안 철야와 금식을 지속하는 특별경건 주간을 갖기로 결심했다. 결과는 건강에 대한 심각한 악화였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휘필드는 7주간 숙소에 누워있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던 중 부활절 주일 그가 기숙사 침대에 누워있을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죄 용서를 경험하고, 믿음의 확신을 얻는, “말로 표현 못할 기쁨”(joy unspeakable)을 체험하게 되었다.¹⁵⁾ 이 경험을 휘필드는 저널에서 종교적 행위로 없앨 수 없었던 “그를 억누르는 억압의 영”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자신에게 믿음을 통한 “양자의 영”을 주신 순간으로 표현했다.¹⁶⁾ 목숨을 건 영적고투에서 얻은 이 경험을 휘필드는 자신이 거듭난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이 시작된 기점으로 확신하였다. 이 회심의 사건이 휘필드의 삶에 얼마나 강렬한 은혜의 흔적을 남겼는지 그가 옥스퍼드를 방문할 때마다 그는 과거를 생각하며 그 장소로 방문하다고 하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 장소를 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가 옥스퍼드를 갈 때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곳,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신 곳, 나는 그곳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자신

Smith (London: William Tegg, 1841), 755.

14) Beaurepaire, *George Whitefield*, 13.

15) Arnold A. Dallimore, *George Whitefield: The Life and Times of the Great Evangelist of the Eighteenth-Century Revival* (Westchester: Cornerstone Books, 1979), 1:77.

16) Whitefield, *Journals*, 58.

의 새 생명이 시작된 사건의 소중함을 거듭 강조하였다.¹⁷⁾

2. 휘필드의 새 생명 설교가 영, 미교회에 미친 영향

휘필드가 강렬한 회심을 경험한 후 곧 그의 설교에서 새 생명에 관한 메시지는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구원에 대해 설교할 때 회심(conversion), 중생(regeneration), 거듭남(born again)이라는 다양한 용어를 썼다.¹⁸⁾ 한 설교에서 그는 영혼의 구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회개(repentance), 혹은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사용해도 좋습니다…우리 주님은 이것을 새 생명(new birth), 혹은 거듭나는 것(born again), 또는 하늘로부터 나는 것(born from above)라고 부르십니다.”¹⁹⁾

이렇게 영혼구원에 대해 휘필드가 다양한 용어를 썼지만 그가 가장 즐겨 썼던 표현은 바로 “새 생명”이었다. 휘필드 설교의 핵심주제였던 새 생명에 관한 메시지는 그의 설교사역 초반부터 영, 미교회 양측에 커다란 영적 반향을 일으켰다.

(1) 영국 국교회를 향한 외침

휘필드의 새 생명 설교가 영국 내에서 어떤 임팩트를 주었는지 파악하

17) Whitefield, *Journals*, 62.

18) George Whitefield, “On Regeneration,” in *The Works of the Rev. George Whitefield M.A. Late of Pembroke College, Oxford, and Chaplain to the Rt. Hon the Countess of Huntingdon, Containing All His Sermons and Tracts Which Have Been Already Published with a Selected Collection of Letters*, ed. John Gillies (London: Kincaid & Bell, 1771), 6:262.

19) Whitefield, “The Potter and the Clay,” in *Works*, 5:210.

기 위해 18세기 당시 영국 국교회의 상황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²⁰⁾ 몇 줄로 이 시기를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교회 역사가들은 18세기 종교적 상황을 “지속적이고 슬픈 쇠퇴”(steady and grievous decline)로 묘사한다.²¹⁾ 당시 영국 국교회는 정치제도를 옹호하면서 국가로부터 여러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이런 정교유착을 비판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²²⁾ 국교회는 외적으로는 영국사회 전반에 안정된 기반을 바탕으로 그 힘을 확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지나친 종교적 형식주의가 만연됨에 따라 교회의 생명력이 쇠퇴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국교회 성직자들은 구원의 표지(sign of regeneration)를 교회출석, 세례 등의 외적행위로 보았다. 실제 당시의 기록을 보면 저명한 길버트 버넷 주교 (bishop Gilbert Burnet) 같은 경우 세례가 단순히 교회의 회원이 되는 과정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We are not only ‘baptized into one body [of the Church of England], but [we] are also ‘saved by baptism.”)으로 가르치며 종교적 행위가 구원의 표지가 됨을 강조했다.²³⁾

20) 18세기 영국 국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Alfred Plummer, *The Church of England in the Eighteenth Century* (London: Methuen & Company, 1910), 4. See also E. J. Poole, *Evangelicalism in England* (Worthing: Henry E. Walter Ltd., 1966), 139: “The early days of the century witnessed a declension in religion in public morality scarcely to be matched in the history of the nation.” 설교역사적 관점에서 이 시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Dallimore, *George Whitefield*, 1:19-32 and G. M. Ditchfield, *The Evangelical Revival* (London: UCL Press, 1998), 39-56. Timothy Ray McKnight, “George Whitefield’s Theology and Methodology of Evangelism” (Ph.D. diss.,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03), 26-56.

21) Ditchfield, *The Evangelical Revival*, 39-56.

22) Gerald R. Cragg, *The Church and the Age of Reason 1648-1789* (London: Penguin Books, 1970), 120-24. William Gibson, ed., *Religion and Society in England and Wales, 1689-1800* (London: Leicester University Press, 1998), 31-35.

23) Gilbert Burnet’s explanation of Article XXVII in *An Exposition of the Thirty-Nine Articles of the Church of England* (London: SMC, 1745), 451.

이런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는 국교도의 가르침에 휘필드의 새 생명에 관한 설교는 도전적 메시지가 되었다. 휘필드는 청소년 때 이미 각종 교회모임과 금식에 참여했으며, 옥스퍼드 시절에는 엄격한 종교적 규율을 훈련받았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 그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없었다.²⁴⁾ 그는 영국 국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참석과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런 행위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외쳤다. “오직 외적고백(outward profession)을 통해…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사람들, 혹은 세례를 통해 교회원이 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사도[바울]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님이 분명하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말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외적고백 이상의 것이다.”²⁵⁾ 휘필드에 따르면 구원이란 단지 물(water)을 통한 세례라는 외적 종교행위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성령을 통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적 세례(inwardly baptism of the heart)로 이루어지는 것이다.²⁶⁾ 그는 구원이란 종교적 형식주의(religious formality)를 넘어 성령의 은혜로 옛 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 새 생명을 입는 것임을 그는 강조했다.²⁷⁾ 그는 단순히 교회출석, 세례, 성찬 등의 종교형식을 통해 자신의 구원의 확증을 얻으려는 사람

24) Whitefield, “All Men’s Place,” in *Important Subjects*, 754.

25) Whitefield, “On Regeneration,” in *Works*, 6:258-59. 이 설교의 원제목은 “The Nature and Necessity of Our Regeneration or New Birth in Christ Jesus” 이다. 앞의 설교의 제목은 축소되어서 출판된 것이다. Timothy L. Smith, *Whitefield & Wesley on the New Birth* (Grand Rapids: Zondervan, 1986), 63.

26) Whitefield, “Spiritual Baptism,” in *Works*, 6:259.

27) George Whitefield, *The Putting on the New Man a Certain Mark of the Real Christian* (London: Towers, 1770), 9-10.

들에게 과연 자신이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도전했다. “그리스도가 그대들 안에 있지 않다… 불쌍한 영혼이여! 얼마나 저주받은 상태에 처해있는가… 지옥에 매달려 있구나… 깨어나라 거짓 평안에 잠자고 있는 자여, 너희 세속적 고백자들이여, 너희 위선자들이여. 교회에 출석하고, 성례에 참여하고, 성경도 읽지만 결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여. 형식적 고백자들이여, 세례 받은 이교자들이여. 깨어라, 깨어나라, 거짓의 바닥에서 쉬지 말라.”²⁸⁾ 휘필드는 새 생명에 관해 1737년, 그의 나이 22세 때 브리스톨(Bristol)에서 처음 설교했는데 그 메시지가 “청중의 의식을 뚫고 들어가는 번개”와 같이 강한 임팩을 주었다.²⁹⁾ 새 생명을 강조하는 휘필드의 메시지는 영국 국교회 성직자들의 거친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그는 국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는 처지가 됨으로 광장과 들판에서 야외설교를 시작하게 되었다.³⁰⁾ 휘필드의 새 생명 메시지에 대한 국교회의 부정적 반응과는 대조적으로 퀘이커 교도(Quaker), 비국교도(Nonconformist or Dissenter) 등의 여러 교파들에서는 긍정적 반응과 공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³¹⁾ 얼마 지나지 않아 다양한 부류의 계층들과 교파들 사이에 휘필드의 새 생명 설교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³²⁾ 그가 새 생명에 대한 설교를 할수록 국교회의 형식주의에 회의를 품고 있었던

28) George Whitefield, “The Method of Grace,” in *Fifteen Sermons Preached on Various Important Subjects* (London: Neilson, 1794), 274.

29) Whitefield, *Journals*, 82.

30) Whitefield, “The Folly and Danger,” in *Important Subjects*, 128. Whitefield, *Journals*, 232.

31) Whitefield, *Journals*, 86, 201.

32) Alan Heimert and Perry Miller, eds., *The Great Awakening: Documents Illustrating the Crisis and Its Consequences* (Indianapolis: The Bobbs-Merrill Company, 1967), xxxvii.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다. 1739년 5월 28일, 그의 나이 24세 때 휘필드가 러지 들관(Rudge's field)에서 새 생명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그의 메시지에 반응했다.³³⁾ 휘필드는 새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교회의 영역을 넘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야외설교(open-air preaching)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무어필드(Moorfields)에서는 이만 명의 사람들이, 케닝톤 광장(Kennington Common)에서는 삼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의 설교를 들었다.³⁴⁾

대규모 야외집회를 통해 전해지는 휘필드의 새 생명에 관한 메시지는 18세기 국교도 안에서 영적 침체를 겪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빠르게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였다.³⁵⁾ 당시 영국교회는 이신론(Deism)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취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던 상황이었다.³⁶⁾ 존 로크(John Locke)에 의해 주장된 이신론에 의하면 신은 세상을 창조하고 자율법칙에 의해 세상이 움직여 나가도록 두었다. 그럼으로 이런 신에게 인격적 요소를 찾거나, 자신이 만든 자연법칙을 깨는 기적을 바라는 것은 미신적 행위라고 이신론은 주장했다.³⁷⁾ 이런 이신론의 신앙에 대한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 영

33) Whitefield, Journals, 276.

34) Whitefield, Journals, 238, 260-63.

35) Bruce Demarest, *The Cross and Salvation: The Doctrine of Salvation* (Wheaton: Crossway, 2006), 290. Timothy L. Smith, *Whitefield & Wesley on the New Birth* (Grand Rapids: Zondervan, 1986), 63.

36) Liego Lucci, *Scripture and Deism: The Biblical Criticism of the Eighteenth-Century British Deists* (Bern, SWIT: Peter Lang, 2008). Matthew Tindal, *An Essay Concerning the Laws of Nations, and the Rights of Sovereigns* (London: Richard Baldwin, 1694), 32.

37) John Locke,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and a Treatise on the*

국 국교회는 주로 논리와 변증중심적인 설교를 발전시켰다.³⁸⁾ 이런 형태의 설교들은 이신론을 반박하고, 신앙의 이성적 체계를 세운 점에서는 공헌을 했지만 두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다.

첫째, 이하라이넨(Pasi Ihalainen)이 지적한 것처럼 교회에서 주로 이성 중심의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강단이 지나치게 경직되는 결과를 낳았다.³⁹⁾ 실제로 당시 국교회의 설교자들은 논리와 변증 중심으로 설교하면서 “신앙적 감흥, 열정, 뜨거운 신앙의 결단” 등의 요소를 배제시킨 차분한 설교 스타일을 추구하였다.⁴⁰⁾

둘째, 고드너(David Gortner)에 따르면 이미 언급한 것처럼 국교회가 정치와 긴밀히 연결된 상태에서 종교적 형식(formality)과 서열(clerical

Conduct of the Understanding (London: Tegg, 1836), 533. Idem., *The Reasonableness of Christianity as Delivered in the Scriptures* (London: A&J, 1969), 255. Matthew Tindal, *An Essay Concerning the Laws of Nations, and the Rights of Sovereigns* (London: Richard Baldwin, 1694), 32.

38) G. M. Ditchfield, *The Evangelical Revival* (London: UCL Press, 1998), 33-34. 논리적, 변증적 설교를 통해 이신론을 반박한 대표적 설교자는 다음과 같다. Berkeley, Conybeare, Sherlock, Warburton, Newton, Butler, William Law, Isaac Watts, Nathaniel Lardner, and John Leland.

39) Pasi Ihalainen, “The Enlightenment Sermon: Towards Practical Religion and a Sacred National Community,” in *Preaching, Sermon and Cultural Change in the Long Eighteenth Century*, ed. Joris van Eijnatten (Leiden: Brill, 2009), 228.

40) Eugene E. White and David Potter, *Puritan Rhetoric: The Issue of Emotion in Religion* (Carbondale, IL: SIU Press, 2009), 51-52. 18세기 국교회 설교자들의 설교와 예배 스타일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들을 참고하라. Horton Davies, *Worship and Theology in England: From Watts and Wesley to Maurice*, vol. 3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73. For more discussion on the lack of passion in Anglican pulpits in this era, see David L. Jeffrey, *A Burning and a Shining Light: English Spirituality in the Age of Wesle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 Company, 1987), 2-10; J. I. Packer, “The Spirit with the Word: The Reformational Revivalism of George Whitefield,” in *The Bible, the Reformation and the Church*, ed. W. P. Stephen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55), 180-81; M. Dorothy George, *England in Transition: Life and Work in the Eighteenth Century*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Book Ltd., 1953), 65.

hierarchy)을 유지하는 것에 치중하면서 전도활동이 소홀한 상황이었다.⁴¹⁾ 이렇게 국교회가 논리적 설교와 종교적 외형에 초점이 맞추고 있을 때, 휘필드의 새 생명을 강조하는 메시지는 영국 교인들에게 상당한 임팩을 주었다. 실례로 휘필드가 야외설교에서 새 생명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졌다.⁴²⁾ 휘필드는 새 생명의 메시지를 계층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 귀족, 천민, 남자, 여자, 노인과 어린, 이신론자와 무신론자, 심지어는 부랑자들까지 그의 설교의 대상이었다.⁴³⁾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양했기 때문에 휘필드는 “명료하면서도 단순한 언어”(singularly lucid and simple language)를 사용해서 모든 이들이 새 생명에 관한 설교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했다.⁴⁴⁾ 이렇게 새 생명에 관한 설교는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국교회와 분명한 대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단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다.⁴⁵⁾

41) David Gortner, *Transforming Evangelism* (New York: Church Publishing, 2008), 3. David Hempton, “Established Churches and the Growth of Religious Pluralism: A Case Study of Christianisation and Secularisation in England since 1700,” in *The Decline of Christendom in Western Europe, 1750-2000*, eds. Hugh McLeod and Werner Ustorf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81-82.

42) John Gillies, *Memoirs of the Life of the Reverend George Whitefield* (Philadelphia: Simon Probasco, 1820), 42.

43) Dallimore, *George Whitefield*, 2:267.

44) Ryle, *The Priest, the Puritan and the Preacher*, 29.

45) 본 논문의 한정된 주제와 분량상 논의되지 않았지만 휘필드의 설교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설교의 내용뿐 아니라 그의 설교 스타일에서 국교회 설교자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국교회 설교자들이 엄숙하고 논리적 스타일을 고집했다면, 휘필드의 설교는 연극적 기법(theatrical methods)과 수사학적 기법(rhetorical methods)이 사용되어 드라마틱한 효과와 강한 설득력을 만들어 냈다. 이는 국교회의 경직된 설교에 한계를 느꼈던 청중들에게는 상당한 신선함과 감동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중요한 두 권의 책을 참고하라. Harry S. Stout's provocative introduction of *The Divine Dramatist: George Whitefield and the Rise of*

(2) 미국 1차 대각성운동에 미친 영향

영국에서의 휘필드의 설교적 임팩은 미식민지(colonial America) 교회들에게 퍼져가게 된다. 앞서 살펴본 영국 국교회의 상황에 비추어 휘필드의 설교학적 임팩을 살펴본 것처럼 18세기 미국 교회(colonial churches)에서의 그의 영향력을 살피기 위해 당시의 종교사회학적 상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⁴⁶⁾ 휘필드가 미국에 오기 전 교회들이 겪고 있었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몇 가지로 축소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중생의 경험이 없는 신자들(unregenerate church membership)의 증가. 둘째, 자격미달의 성직자(unqualified clergy). 셋째, 만연된 이성주의(rationalism)다. 18세기 미국교회는 1648년 공포된 캠브리지 신앙 강령(Cambridge Platform)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것에 따르면 한 사람이 신조교육을 받은 후 공적고백을 하고, 평소 생활에 특별한 도덕적 문제가 없을 경우 세례를 주고, 교회의 회원으로 받을 수 있다.⁴⁷⁾ 이 기준에 따라 신앙의 내적체험 보다는 외적행위들로 교회회원

Modern Evangelicalism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1); Jerome D. Mahaffey, *Preaching Politics: The Religious Rhetoric of George Whitefield and the Founding of a New Nation* (Waco, TX: Baylor University Press, 2007).

46) 18세기 미식민지 교회가 처해있던 종교사회학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책들을 참고하라. Robert L. Ferm, ed., *Issues in American Protestantism* (Gloucester, UK: Peter Smith, 1976); Edwin S. Gaustad, *A Documentary History of Religious in America: To the Civil War*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3); Frank T. Lambert, *Inventing the "Great Awakeni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Mark A. Noll,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2); John Butler, *Becoming America: The Revolution before 177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and Jerome D. Mahaffey, *Preaching Politics: The Religious Rhetoric of George Whitefield and the Founding of a New Nation* (Waco, TX: Baylor University Press, 2007).

47) "Of the Matter of the Visible Church, in Respect of Quality and Quantity," *The Cambridge Platform of Church Discipline Adopted in 1648 and The Confession of Faith*

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nominal Christian)이 증가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세례에 대한 기준이 흐려지면서 성찬과 같은 중요한 교회예식의 기준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스토다드(Solomon Stoddard) 목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교회에 오도록 하기 위해 성찬을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허락함으로써 세례와 성찬에 관한 기준들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게 하였다.⁴⁸⁾ 세례와 성찬에 대한 기준이 흔들림과 더불어 자격 미달의 성직자들의 출현은 당시 미국 교회가 겪고 있었던 또 하나님의 심각한 문제였다. 트레이시(Joseph Tracy)에 따르면 목회자 후보생 가운데 경건함을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심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미국교회 안으로 성직자의 이름으로 유입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⁴⁹⁾ 실제로 휘필드는 미국에 도착해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교회 안에 “회심하지 않은 성직자들이 존재하는 위험”(the danger of unconverted ministers)이 있다고 그의 저널에 기록했다.⁵⁰⁾ 한편 계몽주의의 영향 하에 지성을 강조하는 성직자들이 하버드(Harvard)와 예일(Yale)을 중심으로 배출되었는데 이들은 “좋은 언변”(good elocution)과 “설교단에서 세련된 모습”(agreeable behaviour in the pulpit)을 가진 권위자들로 인식되었다.⁵¹⁾ 당시 이들의 설교가 청중들에

Adopted in 1680 (Boston: Perkins & Whipple, 1850), 52.

48) Solomon Stoddard, “The Inexcusableness of Neglecting the Worship of God,” in *Issues in American Protestantism: A Documentary History from the Puritans to the Present*, ed. Robert L. Ferm (Gloucester, UK: Peter Smith, 1976), 41-42. Stoddard, “The Inexcusableness of Neglecting the Worship of God,” in *Issues in American Protestantism*, 43.

49) Joseph Tracy, *The Great Awakening* (Boston: Tappan & Dennet, 1842), 7.

50) Whitefield, *Journals*, 473.

51) Heimert and Miller, *The Great Awakening*, xxi and 252. Arthur C. McGiffert, *Protestant Thought Before Kant* (New York, CSS, 1911), 251-52.

게 신앙의 지식적인 면을 증대시켜 준 점은 분명하나, 성령의 체험을 통한 중생과 체험적 신앙에 대한 강조하는 면에서는 미약함을 보였다.⁵²⁾

이렇게 회심경험이 없는 성직자의 출현과 지식중심의 설교들로 인해 교회들은 내적 불안정(spiritual instability)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강한 영적기운을 불어넣어준 것이 뉴잉글랜드(New England)와 뉴저지(New Jersey)지역 등에서 테넨트(Gilbert Tennent), 프레링휘센(Theodore Frelinghuysen),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에 의해 일어난 각성운동이었다.⁵³⁾ 이들은 교회 안에 퍼져있던 종교적 형식주의와 지성주의를 비판하면서 기독교 전통교리인 죄, 심판, 하나님의 주권 등을 설교하면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구원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의 메시지는 당시 형식주의와 지성주의에 굳어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충격을 주었고 대규모 회심자들이 생겨나는 각성운동으로 이어졌다.⁵⁴⁾ 18세기 초, 즉 1720-1730년대까지 일어난 이 초기 각성운동은 미

52) Harry S. Stout, *The New England Soul: Preaching and Religious Culture in Colonial New Engl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99.

53) 18세기 미식민지 교회에 일어난 영적 각성운동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들을 참고하라. Thomas S. Kidd, *The Great Awakening: The Roots of Evangelical Christianity in Colonial Americ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7), 83-94. Kidd presents the background of the Great Awakening and recent discussion related to it. For more studies, see Darrett B. Rutman, *The Great Awakening: Event and Exegesis* (New York: Wiley, 1970); J. M. Bumstead, *The Great Awakening: The Beginnings of Pietism in America* (London: Blaisdell Publishing Company, 1970); Cedric B. Cowling, *The Great Awakening and the American Revolution: Colonial Thought in the 18th Century* (Chicago: Rand McNally, 1971); Michael J. Crawford, *Seasons of Grace: Colonial New England's Revival Tradition in Its British Contex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Keith Hardman, *Seasons of Refreshing: Evangelism and Revival in America* (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and G. McLoughlin, *Revivals, Awakenings, and Reform: An Essay on Religious and Social Change in America, 1607-1977*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54) 미국 식민지 시대 초기 영적 각성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설교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그로인한 미국교회 내의 결과들은 미국에서의 휘필드의 설교사역의 임팩을 파악

국교회에 곧 다가올 1차 대각성운동을 예비하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하지만 램벌트(Frank Lambert)의 지적처럼 휘필드가 미국에 왔을 시기에 이 초기각성운동은 몇 지역에 한정된 것(local awakening movement)이었기 때문에 전체 식민주들(the thirteen colonies)로 확대되지 못하고, 그 기운도 점차 쇠퇴하고 있던 상황이었다.⁵⁵⁾ 이런 상황가운데 영국에서의 휘필드의 사역에 관한 소식이 미국교회 전해지면서 그의 미국방문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텔리모어(Arnold Dallimore)는 당시 그의 미국방문을 기대하는 교회들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식민주(the Colonies) 사람들은 영국에서의 휘필드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기 영적 각성운동의 시작과 그 결과들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Dallimore, *George Whitefield*, 1:414; William G. Evan, *Profile of Revival Readers* (Nashville: Broadman Press, 1976), 7; Carl E. Kramer, "The Great Awakening," in *Event that Changed America in the Eighteenth Century*, ed. John E. Finding and Frank W. Thackerary (Westport, CT: Greenwood Publishing Group, 1988), 9; and Peter W. Williams, *America's Religions: From Their Origins to the Twenty-First Century*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2), 141. John Gillies, ed., *Historical Collections Relating to Remarkable Period of the Success of the Gospel and Eminent Instruments Employed in Promotion of It* (Glasgow: Robert & Andrew, 1754), 2:320-21. Heimert and Miller, *The Great Awakening*, 183-204; Richard L. Bushman, ed., *The Great Awakening: Documents on the Revival of Religion* (New York: Institute of Early America History and Culture, 1970), 16-18. Alice Baldwin, *New England Clergy and the American Revolution*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928), 56; Darrett B. Rutman, *The Great Awakening: Event and Exegesis* (New York: Wiley, 1970), 35; J. M. Bumstead, *The Great Awakening: The Beginnings of Pietism in America* (London: Blaisdell Publishing Company, 1970), 70-75; Cedric B. Cowling, *The Great Awakening and the American Revolution: Colonial Thought in the 18th Century* (Chicago: Rand McNally, 1971), 102-24; and Michael J. Crawford, *Seasons of Grace: Colonial New England's Revival Tradition in Its British Contex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65-70.

55) Frank Lambert, "The Great Awakening as Artifact: George Whitefield and the Construction of Intercolonial Revival, 1739-1745," *Church History* 60 (1991): 223.

다. 신문들은 1737년 브리스톨과 런던 교회들에서 있었던 휘필드의 엄청난 설교사역의 열매를 보도했고, 1739년 야외설교에서 더 큰 역사가들이 있다는 것을 알렸다. 이런 뉴스들은 많은 식민주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영적관심을 일깨웠고, 하나님께서 이 저명한 복음전도자를 미국에 보내주시길 소망하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휘필드를 부흥의 불길을 재점화 시키고(rekindle), 그것을 전 지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인물로 보았던 것이다.⁵⁶⁾

이러한 기대 가운데 휘필드는 1739년 10월 미국 델러웨어(Delaware)의 루이스타운(Lewis Town)에 도착해 그의 순회설교사역(itinerant preaching)을 시작했다. 휘필드의 주된 설교는 영국에서와 같이 새 생명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영적 임팩이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휘필드는 식민주의 지역적 중앙에 해당되는 필라델피아(Philadelphia)에서 새 생명에 관한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틀 만에 당시 그 도시 인구에 반에 해당하는 육천 명이 그의 설교를 들었다.⁵⁷⁾ 11월에 그는 뉴욕과 뉴저지에서 설교사역을 마치고 조지아(Georgia)의 사바나(Savannah)로 목적지를 잡고 지나는 주요지역에서 메시지를 전했다. 다음해 그는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시작해 다시 조지아로 향하면서 다시 새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했다. 그가 새 생명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주요 지역에서 뜨거운 영적각성이 일으켰다. 그의 설교가 이렇게 미국에서 깊은 영향을 남기고 1차 대각성운동에 중요한 기폭제가 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스타우트(Harry Stout)의 분석처럼 휘필드의 새 생명에 관한 메시지는 테넌트, 에드워즈와 같은 초기 부흥을 이끌었던 인물들의 설교와 다르지

56) Dallimore, *George Whitefield*, 1:429.

57) Kidd, *The Great Awakening*, 47.

않았고 “복음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로” 그들의 메시지를 강화해주는 기능을 해주었다.⁵⁸⁾ 실례로 테넨트는 출판된 휘필드의 설교집을 읽어본 후 “귀하의 설교는 이 지역에서 여러 해 설교되었던 기독교 진리를 굳건히 확인해주었습니다”라고 휘필드에게 편지를 썼다.⁵⁹⁾ 에드워즈 또한 휘필드를 자신과 같이 견고한 복음의 교리”(doctrines of the Gospel)를 전하는 사람으로 인정했으며, 1740년 노쓰앰튼(Northampton)의 자기 교회에 그를 초대해서 설교하게 하였다.⁶⁰⁾ 에드워즈는 휘필드의 설교를 통해 초기의 “부흥이 쇠퇴하는 것에 대한 질책”(reproofs of backsliding)을 느끼며 자신과 모든 청중들이 “우리가 멀리했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함”을 깨달았다.⁶¹⁾ 휘필드는 에드워즈의 교회에서 새 생명에 대해서 여러 상황 가운데 네 번을 설교했는데, 그 때마나 에드워즈와 그의 아내 피어폰트(Sarah Pierpont) 및 모든 성도들이 큰 충격과 눈물로 설교를 들었다.⁶²⁾ 휘필드의 새 생명에 관한 설교가 미국교회에 큰 영적인 임팩을 준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열정적이면서도 명료한 설교 스타일 때문이었다. 1720년과 1730년대 식민주 초기 영적각성운동에서 사람들은 선포되는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소리치며, 바닥을 구르며” 온몸으로 메시지에 반응

58) Stout, *The New England Soul*, 180.

59) Benjamin Colman, *Three Letters to the Reverend Mr. George Whitefield* (Philadelphia: Andrew Bradford: 1739), 5.

60) George M. Marsden, *Jonathan Edwards: A Lif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4), 204.

61) Jonathan Edwards, “An Account of the Revival of Religion in Northampton in 1740-1742, as Communicated in a Letter to a Minister of Boston,” in *A Narrative of Surprising Conversion* (Mulberry, IN: Sovereign Grace Publishers, 2000), 101.

62) Sarah Pierpont’s letter to her brother James dated October 24, 1740, in J. B. Wakeley, *Anecdotes of Rev. George Whitefield*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00), 277-78. Whitefield, *Journals*, 476-77.

했다.⁶³⁾ 그러나 초기 기운이 쇠퇴하면서 영국 국교회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강단도 지적 설교가 중심을 이루게 되고 뜨거웠던 강단이 사람들에게 점차적으로 차분하고, 때론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휘필드의 설교 스타일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휘필드는 새 생명에 대해 설교하면서 때론 소리치고, 손뼉을 치며, 뛰고, 울며 메시지를 전했다.⁶⁴⁾ 새 생명을 전하기 위한 열정적 설교에 많은 청중들이 눈물로 반응했고, 그들의 첫 신앙을 회복이 일어났다고 휘필드는 회고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첫 사랑을 회복했다.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 안에서 그의 일을 새롭게 행하셨다(revived). 그들의 첫 역사로 그들을 되돌이키신 것이다.”⁶⁵⁾ 휘필드의 새 생명에 관한 설교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영적인 갈망을 더욱 불러일으켰는데, 한 예로 테넌트의 교회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속으로 설교했고, 칠천 명의 청중들의 그의 설교에 한숨과 눈물로 반응했다.⁶⁶⁾ 휘필드는 영국에서와 같이 미국에서도 교회뿐 아니라, 야외설교를 통해 대규모 청중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매 집회 때마다 많은 결신자들이 생겨났다.⁶⁷⁾ 휘필드의 일곱 차례의 미국사역을 통해 약화되는 초기의 부흥운동이 다시 불붙게 되었다.⁶⁸⁾ 동시에 특정 지역에 머물던 초기 영적

63) Klein and Hoogenbroom, *A History of Pennsylvania*, 228.

64) Joseph Belcher, *George Whitefield: A Biography* (New York: American Tract Society, 1857), 492.

65) Whitefield, *Journals*, 477.

66) Whitefield, *Journals*, 413.

67) Ellen D. Larned, *Historic Gleanings in Windham County, Connecticut* (Windham, CT: Preston and Rounds Company, 1890), 13.

68) Stout, *The New England Soul*, 189. 휘필드의 미국 사역 년, 월은 다음과 같다. 1) 1738년 5월-1738년 9월 2) 1739년 10월-1741년 1월 3) 1744년 8월-1748년 6월 4) 1751년 10월-1752년 5월 5) 1754년 5월-1755년 3월 6) 1763년 8월-1765년 6월 7) 1769년 11월-1770 9월.

각성 운동이 그의 순회설교 사역으로 서로 연결되면서 전주를 포괄하는 각성운동 (intercolonial awakening)인 1차 대각성운동이 시작되었다.⁶⁹⁾

III. 휘필드의 새 생명 설교와 현대 강단으로의 적용

지금까지 간략하게 휘필드의 새 생명에 관한 메시지가 영, 미교회에 남긴 임팩을 살펴보았다. 그의 설교는 영국 전도운동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미국에서 1차 대각성운동 발흥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휘필드의 새 생명 설교의 임팩을 통해 현대 설교자들이 배워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첫째, 설교가 단순히 지적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사변적 과정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영적과정이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휘필드가 선명하게 보여주었듯이 18세기 영, 미교회 안에 만연된 이신론과 이성주의를 극복하고 영적각성이 일어난 것은 청중들의 삶과 동떨어진 사변적 설교를 지양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새 생명의 길을 제시할 때 벌어진 일이었다. 이런 역사적 교훈을 통해 신학자와 목회자는 설교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거룩한 소명임을 되새겨야 한다. 둘째, 종교형식주의가 발달할수록 복음에 대한 분명한 제시가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 교회 안에는 복음을 통한 구원의 확신과 영생에 대한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개인적 소망과 종교적 형식에 익숙해져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⁷⁰⁾ 이런 상

69) Marsha M. Wilfong, "Reformed Worship in the United State of America," in *Christian Worship in Reformed Churches Past and Present*, ed. Lukas Vischer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2003), 114. Jerome D. Mahaffey, "George Whitefield's Homiletic Art: Neo-Sophism in the Great Awakening," *Homiletic* 31 (2006): 15-16.

70) 한목협(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이 실시한 "2012년 한국인 종교생활과 의식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 1000명에게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질문을 하자, 60% 이상의 사람들이 신앙기준이 명확치 않은 혼합주의적 경향의 대답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질문에 대

황에서 한국 설교강단에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교회의 강단은 구원과 영생에 대한 강조보다 개인주의적 성향을 만족시키는 위로와 축복의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신앙적 기준이 흔들리고 종교 형식주의를 자신의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주는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설교가 한국 강단에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새 생명의 설교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 전도를 활성화 시키는 메시지로 이어져야 한다. 키드(Thomas S. Kidd)의 분석에 따르면 휘필드의 새 생명 설교는 1740년대 영국과 미국에 일어난 대규모 전도운동에 가장 중요한 촉매제였다.⁷¹⁾ 휘필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 “주님, 제가 모든 사람에게 제 자신을 맞추어 그들 중 몇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영혼에게, 가능한 모든 장소에서, 모든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곤 하였다.⁷²⁾ 또한 전도를 위해 협력이 필요한 경우 교단을 초월해 협동사역을 함으로써 영국과 미국에서 대규모 전도집회들을 가능케 하였다.⁷³⁾ 이런 휘필드의 영혼구원의 열정은 현대 설교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휘필드의 설교사역을 과거의 것으로 묻어버리기에는 18세기 영, 미교회에 그가 남긴 새 생명 설교의 영적 임팩들이 너무도 크다. 휘필드의 새 생명에 관한 메시지는 신

한 답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38%), ‘구원, 영생을 위해’(31.6%), ‘건강과 재물과 성공 등의 축복을 받기위해’(18.5%), ‘가족의 권유’(7.7%), 기타 ‘친교를 위해’ 순으로 이어졌다. 본 조사에 따르면 교회를 출석하는 10명중 약 3명만이 뚜렷한 성경적 신앙의 목적(구원과 영생의 삶)을 가지고 있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한목협 2012 한국인 종교생활과의 식조사,” 2013년 1월 30일, 인터넷 기사.

71) Kidd, *The Great Awakening*, 40.

72) Whitefield, *Journals*, 343.

73) Belden, *George Whitefield: The Awakener*, 240.

학이 사변화 되고, 온갖 세상의 것들로 믿음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한국교회가 참고해야 할 귀중한 설교학적 유산이다.

IV. 닫는 말

설교란 말씀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거룩한 영적고투다. 현대 신학의 지나친 사변화는 교회와 신학의 심각한 분리현상을 야기했다. 신학의 전문화라는 명목 하에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영혼과 생명이라는 성경의 핵심주제를 배제하고 비본질적, 지엽적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동안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⁷⁴⁾ 그리고 한국교회의 위기는 복음의 생명을 상실한 설교강단에서 가장 심각한 모습으로 들어난다.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의 핵심을 깊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설교보다는 설교형식을 가장한 개인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목회자들이 설교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전도에 대해 강조하기 보다는, 어떻게 개인이 현세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런 한국교회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18세기 영, 미교회가 겪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영적위기에 직면해 있다. 신학교에서는 사변적 신학이 넘쳐나고, 교회에서는 생명 없는 종교형식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8세기 영, 미교회가 영적위기에 처했을 때 이성주의를 생명의 갈망으로 바꾸고, 종교적 형식을 진정한 결단으로 바꾼 휘필드의 새 생명 설교사역은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난관을 헤쳐 나갈 길을 보여준다. 그의 설교사

74) 장중현, 개혁주의생명신학 선언문해설, 19-20.

역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설교는 이성을 무시하지 않되, 이성을 뛰어 넘어 복음 안에 담겨있는 생명을 강조해서 듣는 자의 영혼에 깊이 스며들어야 한다. 그가 했던 것처럼 종교적 형식에 안주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증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해보도록 하고, 그를 통해 더 깊은 헌신으로 이끄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휘필드처럼 설교자 자신이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이 넘쳐 그의 메시지로 청중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개인을 넘어 믿지 않는 자를 복음으로 살려내는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휘필드의 새 생명 설교가 18세기 영, 미교회에 큰 영적도약의 계기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전하는 생명담은 설교도 분명 한국교회에 놀라운 영적각성과 부흥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Baldwin, Alice. *New England Clergy and the American Revolution*.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928.
- Beaurepaire, Anthony. *George Whitefield and the Great Evangelical Awakening*. London: Protestant True Society, 1987.
- Belcher, Joseph. *George Whitefield: A Biography*. New York: American Tract Society, 1857.
- Belden, Albert D. *George Whitefield: The Awakener*. Nashville: Cokesbury Press, 1930.
- Bumsted, J. M., *The Beginnings of Evangelical Pietism in America*. ed. The Great Awakening: Toronto: Blaisdell Publishing Company, 1970.
- Burnet, Gilbert. *An Exposition of the Thirty-Nine Articles of the Church of England*. London: SMC, 1745.
- Bushman, Richard L., ed. *The Great Awakening: Documents on the Revival of Religion*. New York: Institute of Early America History and Culture, 1970.
- Conley, Thomas. *Rhetoric in the European Tradition*. New York: Longman, 1990.
- Creighton, Mandell. *A History of the University of Oxford*, 3rded. London: Longmans, Green, & Co., 1894.
- Dallimore, Arnold A. *George Whitefield: God's Anointed Servant in the Great Revival of the Eighteenth Century*. Westchester, IL: Crossway Books, 1990.
- . *George Whitefield: The Life and Times of the Great Evangelist of the Eighteenth-Century Revival*. 2 vols. Westchester, IL: Cornerstone Books, 1980.
- Davies, Horton. *Worship and Theology in England: From Watts and Wesley to Maurice*. 3 vol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 Davis, William V., ed. *George Whitefield's Journals: 1737-1741*. Florida: Scholars' Facsimiles & Reprints, 1969.
- Ditchfield, G. M. *The Evangelical Revival*. London: UCL Press, 1998.
- Edwards, Jonathan. An Expostulatory Letter from the Rev. Mr. Clap, Rector of Yale College. Boston: Kneeland & Green, 1745.
- .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London: Henry G. Bohn, 1871.
- Gaustad, Edwin S. *The Great Awakening in New England*. New York: Harper, 1957.
- Gibson, William, ed. *Religious and Society in England and Wales, 1689-1800*. London: Leicester University Press, 1999.
- Gillies, John. *Memoirs of the Life and Character of the Late of Rev. George Whitefield*. Philadelphia: Simon Probasco, 1820.
- Gledstone, James Patterson. *The Life and Travels of George Whitefield, M.A.*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1871.
- Hardy, Edwin Noah. *George Whitefield: The Matchless Soul Winner*. New York: American Tract Society, 1938.
- Henry, Stuart C. *George Whitefield: Wayfaring Witness*. New York: Abingdon Press 1957.
- Kidd, Thomas S. *The Great Awakening: The Roots of Evangelical Christianity in Colonial Americ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7.
- Lambert, Frank. *Inventing the Great Awakening*.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 . *Pedlar in Divinity: George Whitefield and the Transatlantic Revivals, 1737-1770*.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Mahaffey, Jerome Dean. *Preaching Politics: The Religious Rhetoric of George Whitefield and the Founding of a New Nation*. Waco, TX: Baylor University Press, 2007.
- Stout, Harry S. *The Divine Dramatist: George Whitefield and the Rise of Modern Evangelicalism*.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1.

- . *The New England Soul: Preaching and Religious Culture in Colonial New Engl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Timothy L. Smith, *Whitefield & Wesley on the New Birth*. Grand Rapids: Zondervan, 1986.
- Tyerman, Luke. *The Life of the Rev. George Whitefield*. 2 vols. London: Need of the Times Reprint, 1995.
- Tracy, Joseph. *The Great Awakening: A History of the Revival of Religion in the Time of Edwards and Whitefield*. Boston: Tappan & Dennet, 1842.
- Whitefield, George. *Eighteen Sermons Preached by the Late Rev. George Whitefield. Revised by Andrew Gifford*. London: JG Bookseller, 1771.
- . *Fifteen Sermons Preached on Various Important Subjects*. London: Neilson, 1794.
- . *The George Whitefield's Journals*. Edited by John Gillies. Carlisle, PA: The Banner of Truth Trust, 2001.
- . *The Putting on the New Man a Certain Mark of the Real Christian*. London: Towers, 1770.
- . *Sermons on Important Subjects*. Edited by Joseph Smith. London: William Tegg, 1841.
- . *The Works of the Rev. George Whitefield M.A. Late of Pembroke College, Oxford, and Chaplain to the Rt. Hon the Countess of Huntingdon, Containing All His Sermons and Tracts Which Have Been Already Published with a Selected Collection of Letters*. Edited by John Gillies. 6 vols. London: Kincaid & Bell, 1771-72.
- Aldridge, Marion D. "George Whitefield: The Necessary Interdependence of Preaching Style and Sermon Content to Effect Revival."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23 (1980): 55-64.
- Beldon, Albert D. "George Whitefield: His Influence on His Time." London

- Quarterly and Holborn Review 179 (1954): 217-22.
- Conrad, Leslie, Jr. "The Importance of Preaching in the Great Awakening." *The Lutheran Quarterly* 12 (1960): 111-20.
- Lambert, Frank. "The Great Awakening as Artifact: George Whitefield and the Construction of Intercolonial Revival, 1739-1745." *Church History* 60 (1991): 223-46.
- Mahaffey, Jerome Dean. "George Whitefield's Homiletic Art: Neo-Sophism in the Great Awakening." *Homiletic* 31 (2006): 11-22.
- Lambert, Franklin Talley. "Selling Religious in the Consumer Revolution: George Whitefield and Transatlantic Revivals, 1737-1745." Ph.D. diss., Northwestern University, 1990.
- McCarty, Michael T. "The Internal Congruity of George Whitefield's Letters, 1735-1742: A Word Frequency Analysis." M.A. thesis,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1990.
- McKnight, Timothy Ray. "George Whitefield's Theology and Methodology of Evangelism." Ph.D. diss.,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03.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설교학적 힘
- 조지 휘필드(George Whitefield)의 새 생명 설교와
그 설교학적 임팩에 관한 연구 -

권호(Ho Kwon)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설교학

본 논문은 설교가 신학적 사변을 버리고 올바른 생명신학에 바탕이 되었을 때 어떤 말씀의 충격과 설교학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역사적 사례를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성주의의 절정이었던 18세기에 생명신학이 담긴 설교로 영국교회와 미국 대부흥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조지 휘필드(George Whitefield)를 살핀다. 휘필드는 옥스퍼드에서의 개인적 회심을 “새 생명”(new birth)으로 표현했고, 그가 설교자가 되었을 초기부터 영국교회를 향해 종교적 행위와 지적사변을 버리고, 진정한 새 생명의 경험으로 나올 것을 지속적으로 외쳤다. 그의 새 생명의 메시지는 영국교회의 각성과 전도운동에 기폭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18세기 미국 1차 대부흥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휘필드의 새 생명 중심의 설교적 임팩과 그를 통한 영, 미교회의 영적 각성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변적 지성을 넘어 생명의 힘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참조점을 제시해 준다. 본 글은 휘필드의 새 생명 설교와 그 설교학적 임팩을 연구하기 위해 예비단계로 그의 새 생명

메시지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옥스퍼드에서의 개인적 회심을 살펴볼 것이다. 그 후 그의 새 생명 메시지가 왜 영, 미교회에 중대한 설교학적 임팩을 남겼는지에 관해 분석하고 그 결과들을 정리해 볼 것이다.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휘필드의 새 생명 설교로부터 우리 현대 신학자와 설교자들이 배워야 할 적용점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주제어: 개혁주의생명신학, 새 생명 설교, 대각성운동, 설교학적 임팩, 회심.

Abstract

The Impact of the Reformed Life Theology A Case Study-the Sermon on the New Birth of George Whitefield

Ho Kwon
Kukje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Preaching

This paper presents the impact of the reformed life theology with the case of George Whitefield's sermon on the new birth. Whitefield's oratory thrived in eighteenth-century religious culture of England and America. Whitefield's passionate preaching style was contrary to the rational approach of the Deists and was an effective way to proclaim biblical truths. His preaching, which was expressed through stern warning, deep sympathy, and overflowing tears, moved people's hearts to receive his message. The astonishing responses of hearers attested that his enthusiastic fashion was necessary to overcome the rationalism that had crept into the church. His message emphasizing the experience of the new birth impacted persons accustomed to the formalism of the Anglican Church. His open-air preaching which employed theatrical and rhetorical elements drew the attention of thousands, and it increased the effect of his oratory. In America, Whitefield

reemphasized the necessity of regeneration once laid by revival ministers such as Edwards and Tennent. To reach out to towns that were separated from revival movements, he began an itinerant ministry, traversing the colonies. His theatrical preaching charmed people, and they flocked to the open field to hear him. His message of the new birth provided churches that suffered from an increased number of unregenerate membership and clergy with a desire to awaken. Thus, his message caused mass conversions, led people to broaden revival movements beyond local and denominational boundaries, and ignited an intercolonial awakening.

Key words: reformed life theology, sermon on the new birth, great awakening, homiletical impact, conversion.

논문 접수일: 2013년 8월 25일 수정 접수일: 2013년 9월 21일 게재 확정일: 2013년 10월 15일